

해외산림 투자정보

08

AGUST 2021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Korea Forestry Promotion Institute

Contents

Part 1.

2021년 목재산업 동향 ————— 1p

01. 국제 경제 환경 ————— 1p

02. 해외 주요 국가별 목재산업 동향 ————— 6p

Part 2.







글로벌 임업 동향 ————— 25p

01. 호주·중국간 무역분쟁 ————— 25p




02. 국제원자재 가격상승과 파급효과 ————— 29p

해외 주요 국가별 목재산업 동향




아시아

구분	주요 동향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판 연간 총 생산량 : '19년 대비 11.8% ↑ (2억 5,600만㎡) 침엽수 원목 및 제재목 수입가격은 작년 하반기부터 상승세 지속 '21년 1분기 원목 및 제재목 수입량은 전년 동기대비 상승 원목 제재소 가동률은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시장수요 감소로 약 60~70% 유지하고 있는 반면, 침엽수 제재목 재고는 비교적 안정 '21년 1~5월 중국산 합판 국내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감소(2.3% ↓)한 반면, 중국산 성형목재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16.2% ↑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 자재 부족으로 인한 프리컷팅 공장 가동률 ↓ (주택 건설 지연 발생) '21년 3월 합판 총공급량은 전년 동기대비 1.3% 증가하였으나, 침엽수 합판 재고는 낮은 수준 일본 내 북미 제재목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21년 1분기 일본의 유럽 목재 총수입량은 전년 동기대비 4.9% ↓ '21년 1~5월 일본산 원목 국내 수입량은 전년 동기대비 1.6% 감소한 반면, 제재목 수입은 20.5 ↑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년 1~3월 목재 펠릿 수출물량은 전년 동기대비 9.7% ↑ '20년 베트남의 목재 펠릿 수출은 세계 무역량의 7% 차지하고 있으며, '21년 1~4월 목재 및 목재 제품(W&WP) 수출은 50% 이상 증가하였고, '21년 수출액 50억 달러 도달 전망 '21년 1~5월 베트남산 합판 국내 수입량은 전년 동기대비 16.5% 감소한 반면, 우드펠릿은 전년 동기대비 31.7% 대폭 ↑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년 1~5월 국내 인도네시아산 합판 수입량은 전년 동기대비 5.3% ↑ 인도네시아 수입 합판의 점유율은 32.2%로 베트남에 이어 2위 차지 산지 원목 부족과 컨테이너 확보 문제로 수급의 어려움 발생 '21년 1~5월 인도네시아산 성형목재 국내 수입량은 전년 동기대비 3.0% 증가하였으며, 우드펠릿의 경우 3.1% ↑
 말레이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년 말레이시아 목재 및 목재제품 수출액은 212억 링깃에 달하나, 원자재 가격 및 컨테이너 가격의 급등으로 다소 어려움 발생 MTCS에 따라 인증된 목재제품의 수출은 '19년 대비 '20년 기준 8% 증가하였으며, 주요 수출국은 네덜란드, 일본, 영국 순임 '19년 대비 '20년 제재목 및 몰딩 수출물량은 감소하였으나, 합판 비중은 24% 급증 '21년 1~5월 말레이시아산 제재목 및 합판 국내 수입량은 전년 대비 감소(8.8%, 17.4%)한 반면, 우드펠릿은 6.8% ↑
 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년 1~4월 목제품 및 파티클보드, 제재목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증가(21.6%, 51.5%, 10.5%) 우드펠릿의 경우 아랍에미리트와 호주를 제외한 대부분지역은 수출이 중단됨 '21년 1~5월 태국산 파티클보드 국내 수입량은 전년 동기대비 44.5% 증가(태국산 우드펠릿은 '21년 1~5월까지 수입되지 않고 있음)



아메리카

구분	주요 동향
 <p>미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년 1~5월 미국 서부 제재목 생산은 전년 동기대비 6.0%증가한 반면, 제재목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역대 최고 수준이며, 현상은 유지될 것으로 보임 랜덤랭쓰 구조용 판넬 가격의 상승세 및 하드우드 제재목의 수출증가세는 지속 '21년 1~5월 미국산 원목 국내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5.3%↓(국내 원목 점유율은 6.5%)
 <p>캐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년 1~3월 제재목 및 SPF 제재목 생산량은 전년 동기대비 증가(7.0%, 6.9%) 캐나다 OBS 수출은 '20년 4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지속적인 가격 인상으로 수출액은 250%이상↑ '21년 1~5월 캐나다산 원목 및 제재목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증가(35.8%, 14.9%)하였으며, 이는 유럽산 스프루스 수입이 컨테이너 확보 문제로 수급이 어려워 캐나다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p>칠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년 3월 기준 주요 라디에타 파인 제품의 명목 가격은 지난해 1분기 대비 현저하게 상승하였으며, 제재목과 대패목의 상승이 두드러짐 '21년 4개월 동안 칠레는 임업부에서 17.54억 달러를 수출했으며, 이는 유칼립투스 펄프 수출(186.1%)증가가 가장 큰 요인임 '21년 1~5월 칠레산 제재목 국내 수입량은 전년 동기대비 4.6%↓

오세아니아

구분	주요 동향
 <p>호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불 영향 요인으로 '21년 7월 기준 자국 내 목재공장에 공급할 수 있는 목재의 양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 '21년 1~5월 호주산 원목 국내 수입량은 전년 동기대비 1,773.5%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는 중국과의 무역분쟁으로 우리나라와 인도로 수출을 집중한 결과임. 반면 호주산 제재목 국내 수입량은 64.8% 감소하였는데, 이는 호주 건축 경기 호황으로 침엽수 제재목 가격이 높기 때문
 <p>뉴질랜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질랜드의 모든 등급의 제재목에 대한 수요는 강세를 유지, 수출가격은 매우 높은 편 '21년 1~5월 뉴질랜드산 원목 국내 수입량은 전년 동기대비 4.3%증가하였으나, 호주 원목이 대량 수입되면서, 국내에서 뉴질랜드 시장점유율은 전년 동기대비 11.0%↓ '21년 1~5월 뉴질랜드산 제재목 국내 수입량은 전년 동기대비 5.0%↓
 <p>솔로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년 1~4월 기준 솔로몬 원목의 중국 수출량은 전년 동기대비 2% 감소하였으며, PNG원목은 동기간 29%↓ '21년 1~5월 솔로몬산 원목 국내 수입량은 전년 동기대비 43.6%↓

유럽

구분	주요 동향
 <p>독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 1~2월 기준 제재목 및 대패목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4.8% ↑ • '21년 1~5월 독일산 제재목 국내 수입량은 전년 동기대비 24.1% 감소한 반면, 독일산 원목 국내 수입량은 전년 동기대비 4.9% ↑
 <p>러시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 3월 기준 러시아 제재목 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1.6% ↑ • 라트비아 원목 가격은 '20년 4분기에 이어 '21년 1분기에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며, 버치 원목 가격 또한 4분기 대비 25.2% 상승 • 반면, '21년 1분기 벨라루스의 제재목 및 대패목 수출은 동기 대비 25% ↓ • '21년 1~5월 러시아산 제재목 국내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11.7% 증가하였으며, 동기간 러시아산 합판 국내 수입량은 전년 동기대비 26.6% ↓





Part 1. 2021년 목재산업 동향

01

국제 경제 환경



1. 2021년 세계 경제

2021년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각국의 봉쇄 조치가 있었던 2020년에 비해 9.3% 상승한 5.9%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코로나19 백신 보급·접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세계 경제는 완전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그러나 선진국과 신흥국 간 회복 속도의 불균형, 인플레이션 가능성, 미·중 갈등은 경제 회복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선진국은 백신 공급과 접종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충격에서 서서히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코로나19 백신 공급 및 접종자 수 확대, 고용시장 회복 및 민간소비 증가, 교역량 증가 등에 힘입어 2020년 대비 10.1% 상승한 6.6%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선진국 중에서도 백신접종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은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구제 계획(American Rescue Plan)’ 등 일련의 경기부양책이 시행되고 완화적 통화정책이 유지되면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과 중국 등 대외관계 위협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이다.

유럽 주요국은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백신접종에 따른 소비확산 재개,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책 지속, ECB의 양적완화와 저금리 정책 유지, 수출의 완만한 성장 등에 힘입어 2020년 대비 11.0%(영국 15.9%p) 상승한 4.4%(영국 6.0%)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EU의 재정준칙 적용이 유예되면서 각국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하는 가운데, 경제회복기금(Next Generation EU) 3,900억 유로 중 70%가 2021~22년 동안 집행될 예정이고, ECB는 양적완화정책을 지속하면서 정책금리도 동결할 예정이나,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노동시장과 소비가 회복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코로나19 백신의 보급 지연,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의 무관중 개최, 긴급사태선언 등 위험요인이 존재하지만, 코로나19 충격에서 서서히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020년 대비 7.8% 상승한 3.0%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장기간 금융완화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최근 도입된 대출촉진 가산금리 제도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규모 추경을 편성해왔기 때문에 2021년 재정건전화 목표의 달성도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신흥국의 경우 중국은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인도, 아세안 5개국, 러시아, 브라질은 코로나19 재확산 여부, 인플레이션 가능성 등의 대내 여건과 원자재 가격 추이, 추가 제재 여부 등의 대외 여건에 따라서 경기회복 속도가 결정될 전망이다.

중국은 백신접종 확대, 서비스업의 빠른 회복, 고용 여건 개선 등으로 2020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경기회복세가 계속되면서 2020년 대비 6.3% 상승한 8.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재정지원을 선별적으로 집행하고 유동성 공급과 금융리스크 방지 사이에서 균형 있는 통화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이나, 미·중 갈등 장기화 가능성, 부동산 가격 버블 등은 경제회복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는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인도 내 재확산에 따른 봉쇄조치가 완화될 경우, 2020년 대비 15.9% 상승한 9.0%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4월 26일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35만 명을 기록하는 등 재확산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봉쇄조치가 확대될 경우, 경기위축 가능성도 있으며, 인도가 백신 수출을 제한할 경우 전 세계 백신 공급망 악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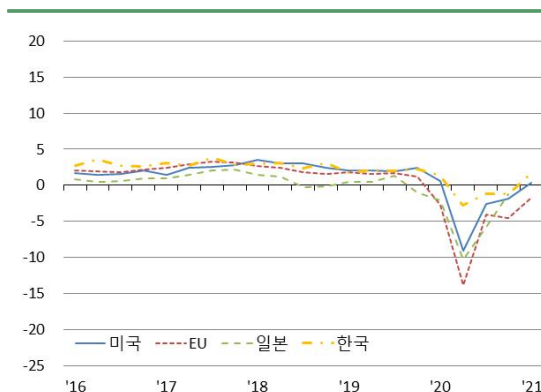
아세안 5개국은 코로나19 이후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으로 경기회복세에 진입하고 있으나, 백신접종의 지연(말레이시아), 3차 확산(태국)으로 인해 2020년 대비 7.7% 상승한 4.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의 지속 여부, 세계 경제의 회복세, 백신 보급 및 접종 속도 등은 경기 회복 정도를 결정할 요인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세계경제 회복세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재정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2020년 대비 6.4% 상승한 3.3%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지만, 인플레이션과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지방정부의 재정적자 확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 백신접종 지연 등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브라질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산업생산이 감소되기는 했지만,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회복 추세가 유지되면서 2020년 대비 7.1% 상승한 3.0%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인플레이션과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로 기준금리를 인상했으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재정건전성 회복 정책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향후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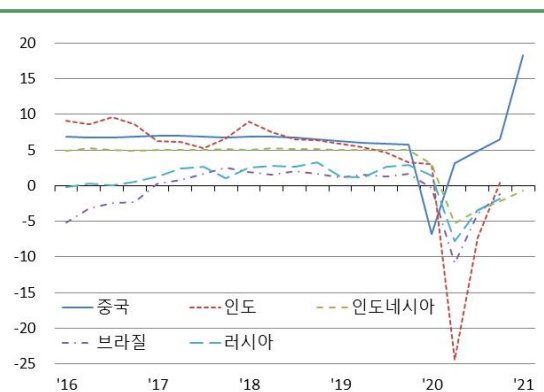
[그림 1] 선진국의 성장률 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그림 2] 신흥국의 성장률 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주 : EU는 영국을 제외한 27개국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재인용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재인용

2. 2022년 세계 경제

2022년은 코로나19 백신 보급·접종이 확대되고 세계경제가 2021년의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4.3%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먼저, 미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노동시장이 정상화되고 확장적 재정 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의 효과가 지속되면서 3.3%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며, 유로 지역과 영국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추이, 미·중 관계 변화, OECD 디지털세 관련 미국과의 갈등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2021년의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각각 4.2%와 5.3%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일본은 백신접종이 확대되면서 집단면역이 확보될 경우, 수출 및 정부지출의 회복세가 계속되면서 1.9%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며, 중국 또한 2021년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이 대규모로 확대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근접한 5.6%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인도는 세계 경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자국 내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경우,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근접한 6.3%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며, 아세안 5개국은 베트남이 6% 후반대의 성장률을 달성하는 가운데, 세계 경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자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5.2%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러시아는 백신 보급·접종이 2022년까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대내·외 여건이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될 경우, 2021년과 동일한 3.3%의 성장률을 유지할 전망이며, 브라질은 세계 경제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농산물과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교역조건이 개선되고 대내적으로는 코로나19 재확산이 진정될 경우 2.3%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표 1] KIEP 세계경제 전망

(단위: 전년대비,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0년 11월] (A)	[2021년 5월] (B)		[2021년 5월]
세계 ³	-3.4 ¹	5.0	5.9	(▲0.9)	4.3
미국	-3.5	2.8	6.6	(▲3.8)	3.3
유로 지역	-6.6	3.7	4.4	(▲0.7)	4.2
독일	-4.8	2.7	3.5	(▲0.8)	3.7
프랑스	-8.1	4.8	5.0	(▲0.2)	4.7
이탈리아	-8.9	4.9	4.3	(▼0.6)	3.9
스페인	-10.8	4.8	6.0	(▲1.2)	5.4
영국	-9.9	4.5	6.0	(▲1.5)	5.3
일본	-4.8	2.0	3.0	(▲1.0)	1.9
중국	2.3	8.4	8.6	(▲0.2)	5.6
인도	-6.9	9.0	9.0	(-)	6.3
ASEAN 5 ⁴	-3.6	5.5	4.1	(▼1.4)	5.2
인도네시아	-2.0	5.0	3.5	(▼1.5)	5.0
말레이시아	-5.6	5.5	5.3	(▼0.2)	5.2
필리핀	-9.5	7.5	4.8	(▼2.7)	5.3
태국	-6.1	4.0	2.0	(▼2.0)	4.0
베트남	2.9	7.2	6.6	(▼0.6)	6.8
러시아	-3.1	3.2	3.3	(▲0.1)	3.3
브라질	-4.1	3.1	3.0	(▼0.1)	2.3

- 주 : 1) Oxford Economics(4. 23) 기준
 2) [] 안은 전망시점
 3) PPP 환율 기준
 4) ASEAN 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의 PPP 환율 적용 GDP 합 기준
 5) () 안은 2021년 성장률 전망에 대한 2020년 11월과 2021년 5월 전망 사이의 조정치(B-A)

02

해외 주요 국가별 목재산업 동향



아시아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1. 아시아

가. 중국

중국 내 2021년 1분기 부동산 총투자액은 약 2.8조 위안(4,310억 달러)으로 전년 대비 25.6%, 2019년 대비 15.9% 증가했다. 특히, 주거용 건물에 대한 투자는 2.1조 위안(3,230억 달러)으로 전년 대비 28.8%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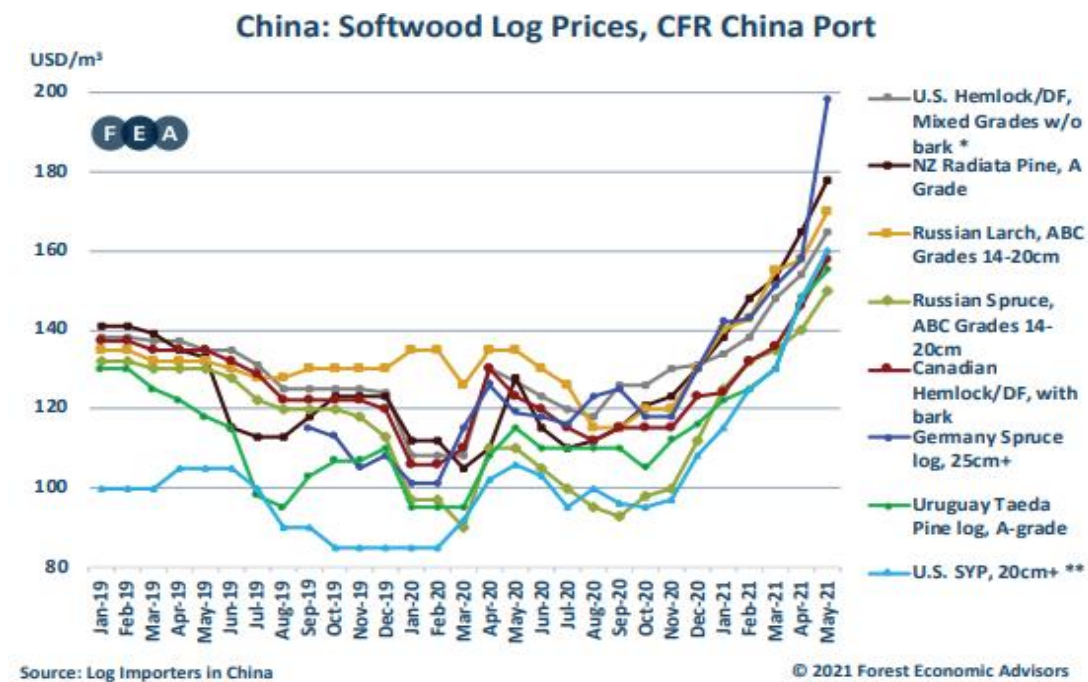
2020년 현재, 중국은 15,200개의 합판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20년 말까지 총 17,500개의 합판생산 공장을 폐쇄하거나 철거했지만, 연간 총생산량은 2억 5,600만^m로 2019년보다 11.8% 증가했다. 이와는 별개로 연간 2,440만^m의 생산 능력을 갖춘 2,050개의 새로운 합판 공장을 건설 중에 있으며, 새로운 합판 생산공장이 완공되면 중국의 총 합판 생산 능력은 2021년 말까지 연간 2억 7천만^m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북미 등에서 수입한 침엽수 원목 수입 가격은 지난 하반기와 비교하여 80~90% 이상 상승했으며, 침엽수 제재목 수입 가격 역시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표 2] 2021년 5월 침엽수 원목 수입가격(중국항 CFR)

침엽수 원목(중국항 CFR)	US\$/m³	전월대비
		US\$/m³
러시아 낙엽송, ABC 등급, 직경 14~20cm	\$170	+12
러시아 스프루스(화이트 파인), ABC 등급, 직경 14~20cm	\$150	+10
US. 헴록/더글러스 퍼, Mix 등급, 박피(20~28cm)	\$165	+11
Canada. 헴록/더글러스 퍼, Mix 등급, 수피포함	\$158	+12
NZ 라디에타파인, A등급	\$178	+13
US. SYP 원목, 5.8m, 20cm+(JAS)	\$160	+12
우루구아이, 테다 소나무 원목, A등급	\$155	+7
독일 스프루스원목, 25cm+, 11.5m+30cm(€165/m³)	\$198	+40

[그림 3] 중국 : 침엽수 원목 수입가격, 중국항 CFR(2021년 5월 기준)



[표 3] 2021년 5월 제재목 수입가격(CIF, 중국 주요항)

침엽수 제재목가격 - 중국 주요 항구	US\$/m³	전월대비
		US\$/m³
SPF , S4S, KD, 2X4, Economy (#4)	\$266	+46
SPF , S4S, KD, 2X4, Utility (#3)	\$296	-
SPF , S4S, KD, 2X4, #2	no.offer	N/A
SPF , S4S, KD, 2X6, Economy (#4)	\$248	+38
SPF , S4S, KD, 2X6, Utility (#3)	\$260	+20
SPF , S4S, KD, 2X6, #2	no.offer	N/A
Hemlock, 40x90 , rough, green, Utility&btr	\$320	+30
Russia Spruce lumber, 25-50mm, rough, KD, SF#1-4	\$390	-10
Russia Spruce lumber, 25-50mm, rough, KD, SF#5	\$370	-10
Russia redpine lumber, 25-50mm, rough, KD, SF#1-4	\$390	+10
European Spruce , 22mm, KD, SF#1-5	\$390	-10
Radiata pine, 25-50mm, Rough, KD, Furniture grade	\$390	+10
Ukraine red pine lumber, 37x87mm, rough, AD, deadwood	\$270	+30

[그림 4] 중국 : 침엽수 제재목 수입가격, 중국 주요항 CIF(2021년 5월 기준)





2021년 1분기 중국 원목 수입은 2020년 1분기보다 수량은 25%, 금액은 33% 증가한 반면, 제재목 수량은 16%, 금액은 0.2% 감소했다. 침엽수 원목은 뉴질랜드, 독일, 러시아, 미국, 우루과이, 체코, 캐나다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제재목은 러시아, 캐나다, 우크라이나, 핀란드, 독일, 스웨덴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원목 재고는 2월 말 660만^m에서 4월 말 460만^m로 떨어졌으며, 평균 제재소 가동률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시장 수요 감소로 약 60~70%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침엽수 제재목 재고는 비교적 안정 되어 있다.

2021년 1~5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중국산 합판은 6만3,600^m으로 지난해보다 2.3% 감소하였으며, 국내 총 합판 수입량 또한 64만5,680^m으로 지난해보다 10.3%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중국산 성형목재 수입은 8,21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2% 증가하였다.

나. 일본

2021년 3월, 일본 내 신규 착공 주택 수는 71,787채로 지난해보다 1.5% 증가했으며,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21개월 만에 증가한 것으로 임대 주택은 31개월 만에 증가했다. 주택착공 증가는 실제 건축 경기 회복이라기보다는 약 900채의 콘도미니엄 착공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분양용 단독주택은 3,000채가 줄었다.

프리컷팅 공장들은 건축 자재 부족으로 가동률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일부 공장은 70~80% 정도의 가동률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적층 기둥과 빔 공급 부족으로 일부 공장은 공장 가동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건축 자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보다 20~30% 높은 가격에 자재 구매 방법을 찾고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실정이다.

도쿄 지역의 프리컷팅 공장들은 건축 자재 부족으로 주택 건설이 지연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다른 공장들에 확산하고 있다. 프리컷팅 공장의 가동률 하락 문제는 신규주택 착공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식당, 술집, 호텔은 비상사태 선언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았으나, 2020년 주택 시장은 10% 정도 감소하여 다른 사업에 비해 피해가 적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가 아니라 건축 자재 부족으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며 주택 신규착공 20~30% 감소는 2020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

2021년 3월 합판 총공급량은 486,100㎥로 2020년 3월보다 1.3% 증가하였고, 2월보다 15.1% 증가했다. 합판 생산량은 3개월 만에 27만㎥를 넘어섰지만, 침엽수 합판 재고는 103,100㎥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입 목재와 마찬가지로 합판 공급 부족 사태는 발생하고 있지 않으며, 지금까지 공급과 출하가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구조용 합판 재고가 적어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 부족 사태는 발생할 수도 있다.

일본 내 북미 제재목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5월 첫째 주, 15개 구조용 제재목 평균 가격은 MBM당 1,414달러로 4월 첫째 주보다 388달러(37.8%) 상승했다. 1분기 일본의 유럽 목재 총수입량은 187,000㎥로 2020년 1분기보다 4.9% 감소했으며, 5월과 6월 선적량은 정상 공급량보다 매우 적다. 이러한 현상은 일정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지속적으로 원목과 제재목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5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일본산 원목은 48,090㎥으로 지난해보다 1.6%가 감소하였으며, 일본산 제재목 수입은 5,290㎥으로 지난해보다 20.5% 증가했다.

다. 베트남

베트남산 덮개 씌운 좌석용 가구에 대한 캐나다 국제 무역 재판소(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 CITT)의 덤핑에 관한 예비 조사 결과, 101.5%의 반덤핑 세율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치는 베트남에서 캐나다로 수출되는 관련 상품 가격 경쟁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참고로 2020년 베트남과 캐나다는 양자 교역량이 51억 달러에 이르고 베트남은 2017년부터 ASEAN 회원국 중 캐나다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다.

2020년과 비교하여 2021년 1~3월까지 목재 펠릿 수출물량은 9.7% 증가한 751,000톤, 금액은 15% 증가한 8,460만 달러이다. 같은 기간 우드 펠릿 수출 가격은 톤당 112.7달러로 2020년 같은 기간에 비해 4.8% 상승했다.

2020년 베트남의 목재 펠릿 수출은 목재 펠릿 세계 무역량의 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 1~3월까지 베트남에서 생산된 거의 모든 목재 펠릿(99.6%)은 우리나라와 일본으로 수출되었다.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은 444,000톤, 4,409만 달러로 2020년 동기 대비 물량은 2.6%, 금액은 7.1% 증가했다.

[표 4] 베트남의 목재 펠릿 수출

	Volume 000s tonnes	Price US\$/tonne
Total	751	112.7
South Korea	444	99.3
Japan	304	132.5
PNG	2,89	95.1
Taiwan P.o.C	0,10	182
Kuwait	0,03	680

출처 : 산림청 통계자료

2021년 1~4월까지 베트남의 목재 및 목재 제품(W&WP) 수출은 50% 이상 증가했으며, 현재의 증가율이 계속된다면 2021년 W&WP 수출액은 5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표 5] 베트남 목재 및 목재 제품 수출 현황

	Value(US\$)	Growth(-/+%)
US	3,120,456,331	+95%
China	526,699,437	+17%
Japan	472,599,123	+8%
South Korea	293,258,990	+10%
UK	92,011,155	+26%
Canada	83,659,433	+58%
Australia	54,771,157	+48%
Germany	52,822,532	+16%
France	47,018,771	+28%
Spain	15,920,612	+55%

출처 : 베트남 관세청

2021년 1~5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베트남 합판은 28만7,930m³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5% 감소하였으며, 우드펠릿은 95만1,617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7% 증가하였다.

라. 인도네시아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인도네시아 내 목제품 성장은 약화되었지만, 현재는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10월부터 3월까지 우기로 원목 생산량이 현저하게 줄어 합판 생산 공장가동률이 대부분 60~70%에 그쳤으며, 일부 공장의 경우는 원목 감소로 가동이 일시 중지되는 경우도 있었다.

2021년 1월~5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인도네시아 합판은 20만8,230m³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하였다. 인도네시아 수입 합판의 점유율은 32.2%로 베트남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산지 원목 부족과 컨테이너 확보 문제가 겹치면서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마루판 대판은 850~900달러까지 인상된 주문이 나오는 등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 동 기간 인도네시아 성형목재 수입은 27,105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하였다. 인도네시아 우드펠릿의 경우는 2021년 1월~5월까지 11만 2,679톤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물량이다.



마.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코로나19 감염 건수 증가로 3차 봉쇄가 이어지고 있으나, 봉쇄로 인한 목재산업 피해는 해외 시장 수요 덕분에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말레이시아 목재 및 목재제품 수출액은 212억 링깃에 달하지만,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컨테이너 가격 급등으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

2021년 3월 31일 현재, 말레이시아 목재인증제도(Malaysian Timber Certification Scheme: MTCS)에 따라 인증된 말레이시아 산림의 총면적은 5,272,734ha로 5,139,745ha를 포함하는 22개의 산림 경영 단위(Forest Management Unit: FMU)가 있다.

MTCS에 따라 인증된 목재 제품의 수출은 2019년 243,366.81m³에서 2020년 263,000.78m³로 8% 증가했으며, MTCS 인증 목재와 목재 제품 주요 수출국은 네덜란드(28%)이다. 그 다음으로 일본과 영국에 2020년 전체 수출물량의 19%와 9%를 수출했다. 품목별 수출물량을 보면 제재목은 2019년 대비 2020년 6% 감소했으며, 몰딩 역시 감소했으나, 합판 비중은 8.8%에서 24%로 급증했다.

2021년 1월~5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말레이시아 제재목은 14,340m³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 감소하였으며, 합판 또한 4만6,760m³으로 전년 대비 17.4% 감소하였다. 동 기간 우드펠릿은 22만6,955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다.

바. 태국

2021년 4월, 태국 목재 공장가동률은 64.8%로 지난 3월 64.39%보다 다소 증가하였다. 이에 2021년 1~4월까지 목제품 수출은 278억6,400만 바트로 전년 동기대비 21.6% 증가하였으며, 중국으로의 제재목 수출과 인도, 한국 및 일본으로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체 목제품 수출은 증가했다.

[표 6] 태국 목제품 수출 현황

(단위 : 백만바트)	2021년 1~4월	2020년 1~4월	2019년 1~4월	변동(%) (21/20)	변동(%) (20/19)
목제품	27,864	22,914	25,744	+21.6	-11.0

출처 : 산림청 통계자료

2021년 1~4월까지 파티클보드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1.5% 증가했으며, 제재목 수출은 중국의 수입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하였다. 우드펠릿의 경우 아랍에미리트와 호주로만 수출이 이뤄지고 있으며 대부분 지역으로의 수출은 중단된 상황이다.

2021년 1~5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파티클보드 국내 총 수입량은 72만 570 m³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9% 증가하였고, 태국으로부터 수입한 파티클보드는 59만 9,080m³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5% 증가하였다. 2021년 1~5월까지 태국산 우드펠릿은 수입 되지 않고 있다.

2. 아메리카

가.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발표한 2021년 5월 최종 소비자 심리 지수(Index of Consumer Sentiment: ICS)는 4월 88.3에서 5월 82.9로 6.1% 하락했으며, 2020년 5월과 비교했을 때, ICS는 2020년 5월 72.3에서 14.7% 상승했다.

2021년 4월 민간 주택착공은 156.9만 호로 추정치 173.3만호보다 9.5% 낮지만, 2020년 4월보다 67.3% 높은 수치이다. 4월에 착공된 단독주택은 108.7만 호였으나 이 수치는 3월 수정치보다 13.4% 낮은 수치이다.

2021년 1~5월까지 미국 서부 제재목 생산은 607만4천MBF로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하였다. 반면 제재목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단기간 공급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가격은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 기] 제재목 가격 동향

구 분	2021년 5월	2021년 4월	2020년 5월
랜덤랭쓰 프레이밍 럼버 콤포지트	1,479	1,158	414
2×4 #2& Btr, KD W- SPF	1,604	1,269	361
2×4 #2&Btr, Green D/Fir(포틀랜드)	1,365	1,080	426
2×4 #2 KD SYP (서부)	1,359	1,100	462
2×4 8' PET KD W- SPF	1,510	1,168	365
1×12 #3 KD Ponderosa pine	1,129	1,076	484

출처 : 산림청 통계자료

다음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랜덤랭쓰 구조용 판넬 콤포지트 가격지수는 \$1,584/MSF로 전년 5월 대비 293.1%가 증가한 상태이며, 구조용 판넬 가격은 대부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강력한 내수 수요, 미국 하드우드 제재소 및 집산 야드 가용성, 하드우드에 대한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하드우드 제재목의 수출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다.

[그림 5] 랜덤랭쓰 구조용 판넬 콤포지트 가격지수



2021년 1월~5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미국 원목은 8만5,740m³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가 감소하였으며, 미국산 원목 국내 수입 원목 점유율은 6.5%이다.

나. 캐나다

4월 캐나다 단독주택 월별 주택착공(SAAR:월별 계절 조정 연율)은 268,631호로 3월의 334,759호에 비해 19.8% 감소했다. 4월 다세대 착공은 22.8% 감소한 251,504호로 나타났으며, 단독주택 착공은 0.1%, 감소한 78,918호로 나타났다.

2021년 1~3월까지 제재목 생산은 1,508만9,800m³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했으며, SPF 제재목 생산은 1,317만9,900m³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했다.

[표 8] 캐나다 목재생산 동향

구분 (1,000m³)	2021년 3월	2020년 3월	변동 (%)	2021년 1-3월	2020년 1-3월	변동 (%)
총계	5,632.4	5,009.2	+12.4	15,089.8	14,099.6	+7.0
활엽수	85.6	106.7	-19.8	237.7	310.9	-23.5
침엽수	5,546.8	4,902.5	+13.1	14,852.1	13,788.8	+7.7
Spruce, pine, fir	4,909.2	4,415.1	+11.2	13,179.9	12,328.0	+6.9
기타 침엽수	637.6	487.4	+30.8	1,672.2	1,460.8	+14.5

출처 : 산림청 통계자료

2020년 10월 이후 동부 스프루스-파인-퍼 스타드와 판넬(OSB 및 합판)을 제외하면 제재목 가격은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Madison's Weekly Softwood Lumber Prices

Madison's Weekly Softwood Lumber Prices www.madisonsreport.com						
2021-05-21						
US Dollars per 1,000 fbm (net FOB sawm) unless noted *	Last Week	Previous Week	Change %	Month Ago	Change %	
WSPF KD 2x4 R/L #2&Btr	1,640	1,640	0.0%	-- 1,230	33%	▲
SYP East KD 2x4 R/L #2&Btr	1,400	1,390	+0.7%	▲ 1,118	25%	▲
ESPF KD 2x4 R/L #2&Btr	1,725	1,725	0.0%	-- 1,292	34%	▲
WSPF KD 2x4 PET Stud	1,506	1,506	0.0%	-- 1,138	32%	▲
Douglas Fir Green R/L 2x4	1,355	1,355	0.0%	-- 1,025	32%	▲
CSplywood Toronto 3/8" *(CDN\$/msf)	1,582	1,495	+5.8%	▲ 1,320	20%	▲

출처 : www.madisonsreport.com

캐나다 OSB 수출은 2020년 4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가격 인상으로 수출액은 250% 이상 증가했다. 북미 OSB 시장에 대한 높은 수요로 미국으로의 선적이 15%(138.7만^m) 증가했으며, 다른 시장으로의 수출은 1분기 동안 감소했다.

[표 9] 캐나다 OSB 수출동향

구 분	2021년 1~3월(^m)	2020년 1~3월(^m)	변동(%)
USA	1,387,469	1,204,989	+15
Japan	26,108	32,869	-21
China	15,612	16,318	-4
South Korea	5,506	11,388	-52
Vietnam	3,951	21,684	-82
Chile	3,585	0	n.a.
Mexico	1,231	2,707	-55
Total	1,445,321	1,291,967	+12

출처 : EUWID, based on data provided by statistics Canada

주 : The differences to the total sum derive from the data for countries which are not listed separately.

2021년 1월~5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캐나다 원목은 6만2,470^m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8% 증가하였으며, 캐나다산 제재목은 4만5,660^m이 수입되어 전년 동기 대비 14.9% 증가하였다. 이는 유럽산 스프루스 수입이 컨테이너 확보 문제로 수급이 어려워 캐나다로부터의 수입이 늘었기 때문이다.

다. 칠레

2021년 4월, 칠레 소비자 물가 지수(CPI)는 0.4% 상승했으며, 2021년 1~4월까지 1.6%, 12개월 동안은 3.3% 상승했다. CPI 바스켓을 구성하는 12개 부문 중 10개 부문이 상승했으며, 2개 부문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및 기본 서비스 부문을 구성하는 16개 제품 중 10개 제품 가격이 상승되었으며, 주택 수리용 자재가 땀감(6.5%)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4.7%) 상승했다.

2021년 3월 칠레에서 판매되는 주요 라디에타 파인 제품의 명목 가격은 2020년 1분기에 비해 현저하게 상승했으며, 제재목과 대패목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라디에타 파인 제재목의 가격은 비오비오와 뉴블레 지역의 제재소에서 24.3% 올랐고, 수도권 바라카에서 16.0% 상승했다. 특히, 지난 12개월 동안 매우 큰 폭으로 올랐다. 2021년 3월 비오비오와 뉴블레 지역 저장소에서 이뤄진 거래에서 라디에타 파인 가격은 2020년 12월과 비교해 7.3%, 수도권 지역에서는 9.9% 상승했다.

농업부 산하 단체인 임업연구소(INFOR)에 따르면, 2021년 4개월 동안 칠레는 임업 부분에서 17.54억 달러를 수출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4.1% 성장한 수치이다. 17.54억 달러 수출은 3월에 비해 61%, 2020년 동월 대비 42% 증가한 수치이다. 수출 증가는 유칼립투스 펄프 수출(186.1%) 증가 때문이며, 라디에타 파인 미가공 펄프는 121%, 같은 종의 표백 펄프는 98.8% 증가했다. 이 세 가지 제품의 수출액은 각각 1억 1,500만 달러, 3,900만 달러, 1억 2,200만 달러에 이른다. 껍질 없는 칩은 2020년 3월 대비 151%, 2020년 4월 대비 11.6%의 수출 성장을 기록했으며, 합판은 2021년 3월 대비 10%, 4월 대비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상반기 가장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제품은 파인 펄프(39.4%), 몰딩(38%)이었으며, 표백 파인은 32.5% 증가했다.

2021년 1월~5월까지 우리나라 제재목 국내 총수입량은 80만8,260m³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하였으며, 칠레로부터의 수입량은 18만2,350m³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했다.

3. 오세아니아

가. 호주

호주에서 단독주택 건설 붐의 정점을 이뤘던 2018년보다 20% 이상 높은 14.6만 채가 2021년 9월까지 착공될 예정이며, 주택 리모델링 역시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단독주택과 다르게 다세대주택은 신규 착공이나 리모델링 등의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4월 신규 주택 판매는 HomeBuilder가 종료되면서 3월 보다 54.4% 감소했다. 이 수치는 코로나 충격 전보다 평균 2.7% 낮은 수치이다.

국영 임업공사(NSW Australia)에 따르면, 2021년 7월 1일부터 목재 공장에 공급할 수 있는 목재의 양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산불 영향이 크며 주택용 목재 대한 공급 부족 문제는 주택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12개월 전에 비해 MGP 제품 가격은 종류에 따라 2.9%에서 3.5% 사이에서 상승했으며, F7의 경우는 종류에 따라 4.3%에서 7.2% 사이에서 상승했다.

[표 10] MGP 제품 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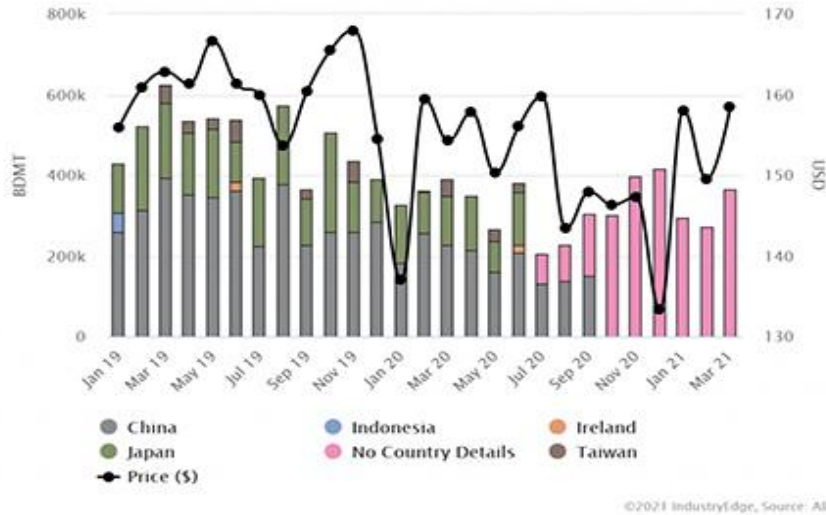
Product	Dimension (mm*)	12months to Mar-21	3months to Mar-21
MGP 10	70×35×4.8m	↑ 3.47%	↑ 4.75%
MGP 10	90×35×4.8m	↑ 3.09%	↑ 4.51%
MGP 12	70×35×4.8m	↑ 3.50%	↑ 4.65%
MGP 12	90×35×4.8m	↑ 2.94%	↑ 4.17%
F7-H3 treated	70×35×4.8m	↑ 4.32%	↑ 3.34%
F7-H3 treated	90×35×4.8m	↑ 7.24%	↑ 5.97%

출처 : Timber Market survey

*unless otherwise sta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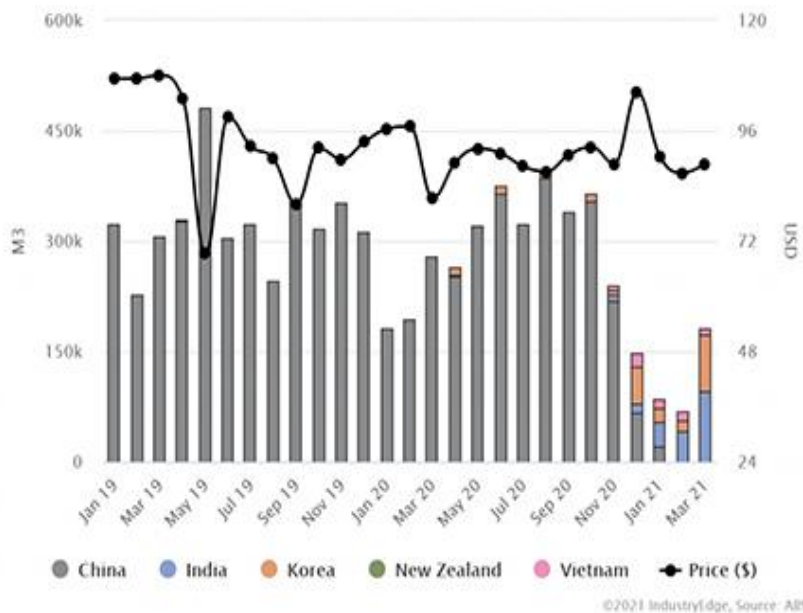
3월 하드우드 칩 수출은 36.6만bdmt(완전 건조 미터 톤) 증가했으며, 평균 수출 가격 역시 206/bdmt(FOB, 호주 달러)까지 올랐다.

[그림 7] 하드우드 칩 수출 현황



침엽수 원목 수출은 3월, 183천^m까지 증가했으나, 중국과의 무역분쟁으로 우리나라와 인도로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그림 8] 호주 침엽수 원목 수출 - 19년 1월~21년 3월 (천^m&USDFob/^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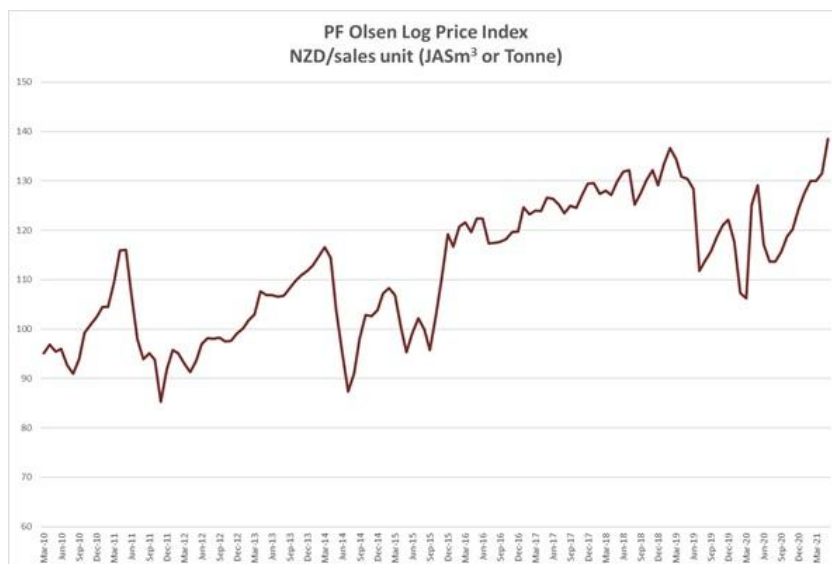
2021년 1월~5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호주 원목은 24만2,620m³로 전년 동기 대비 1,773.5% 증가했다. 이는 중국이 호주 원목 수입을 중단한 이후 우리나라와 인도로 수출을 집중한 결과이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저렴한 호주 원목 수입을 늘렸기 때문이다. 호주 제재목은 1,070m³가 수입되어 전년 동기 대비 64.8%가 감소했는데, 이는 호주 건축 경기 호황으로 침엽수 제재목 가격이 높기 때문이다.

나. 뉴질랜드

뉴질랜드에서 모든 등급의 제재목에 대한 수요는 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출 가격은 매우 높은 편이다. 1분기까지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이는 자국 시장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PF 올슨 원목 가격 지수는 5월 138달러로 6달러 상승했으며, 이 지수는 현재, 2년 평균보다 18달러, 3년 및 5년 평균보다 14달러 높은 수치이다.

[그림 9] PF 올슨 원목 가격 지수 동향



출처 : 산림청 통계자료

3월 말까지 전년 대비 중국 원목 수출이 12% 증가하여 원목 총수출은 8% 증가했으며, 3월 중국으로의 선적이 전월 대비 118% 증가했다.

[표 11] 뉴질랜드 원목 수출현황

백만NZD	원목 수출현황					
	2020년 3월	2021년 3월	증감(%) (21/20)	2020년 3월 연간	2021년 3월 연간	증감(%) (21/20)
중국	153.0	333.1	+118	2,502	2,813	+12
인도	17.2	0.2	-99	213	68	-68
일본	5.5	1.9	-65	55	45	-19
한국	21.8	28.7	+32	264	268	+1
기타	10.2	17.7	+74	76	181	+139
합계	207.6	381.6	+84	3,111	3,374	+8

출처 : 산림청 통계자료

2021년 1~5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뉴질랜드 원목은 75만 9,810m³로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하였으나, 호주 원목이 대량 수입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뉴질랜드의 시장점유율은 57.8%로 전년 동기 대비 11.0% 감소하였다. 뉴질랜드 제재목은 3만 2,180m³가 수입되어 전년 동기 대비 5.0%가 감소하였으며, 시장점유율 역시 4.0%로 전년 동기 대비 0.2%포인트 감소하였다.

다. 솔로몬. PNG

중국의 수요 감소로 PNG의 원목 생산은 물론, 수요도 적은 편이다. 반면 최근 인도가 PNG에서 원목 구매를 시작했는데, 이는 미얀마의 정치 상황으로 인해 수입처를 바꾼 결과이다.

5월 솔로몬 원목 가격은 2021년 4월과 비교해 10달러 상승하여 한국이 선호하는 딜레니아 원목은 m³당 260달러(CNF)에 거래되고 있고, 부켈라 원목은 m³당 240달러(CNF), MLH 원목은 m³당 205달러(CNF)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PNG 원목 가격은 중국의 매수세가 부진하여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산지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5월 펜실시다 원목은 전월보다 10달러 상승하여 m³당 240달러(CNF)에 거래되고 있다.



2021년 1~4월까지 솔로몬 원목은 중국으로 66만9천 m^3 를 수출하여 전년 동기 대비 2%가 감소하였으며, PNG는 동 기간 68만7천 m^3 를 중국으로 수출하여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다.

2021년 1~5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PNG원목은 18,480 m^3 로 전년 동기 대비 9.5% 감소하였고, 솔로몬 원목은 7,560 m^3 가 수입되어 전년 동기 대비 43.6% 감소하였다.

4. 유럽

가. 독일

2021년 2월 독일 주택 건축허가는 전년 대비 23.9% 증가한 26,390호(2020년 2월 : 21,298호)였으며, 2월의 짧은 일수를 고려할 때, 주택 건설 물량은 2020년 2월과 비교해 5.1% 증가했다.

2021년 3월 비치 제재목 가격 인상은 주로 유럽 수출 시장에서 나타났지만, 둥근모(가장자리)가 있는 비치 제재목 가격 인상은 거의 모든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글루램의 경우 수요와 공급 불일치로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2021년 1~2월 두 달 동안 2020년 동 기간 대비 4.8% 상승한 155.6만 m^3 의 제재목과 대패목 제품을 수출했다. 2020년 대비 영국은 74%, 미국은 31%, 오스트리아는 10%, 프랑스는 9% 수출량이 증가했으나, 중국은 2020년 보다 46% 감소했다.

2021년 1월~5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독일 제재목은 5만540 m^3 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1% 감소했으며, 국내 관련 시장점유율은 6.3%로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하였다. 수입량 감소는 컨테이너 부족 문제 때문을 보인다. 반면 독일에서 수입한 원목은 8만5,490 m^3 로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하였으며, 독일 원목의 수입시장점유율은 6.5%이다.

나. 러시아

러시아 목조 주택 건설 협회 ADD(모스크바)에 따르면, 통나무집뿐만 아니라 프레임 건축 스타일의 주택 건설이 2019년 대비 2020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3월, 러시아 제재목 생산량은 약 260만 m^3 로 전년 동월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월까지 3개월 동안 누적 생산량은 700만 m^3 로 2020년 1분기보다 1.9% 감소한 수치지만 이 수치는 2020년 기록한 최고 생산량(약 710만 m^3) 다음으로 높은 생산량이다. 높은 생산량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재소는 1월과 2월 원목 공급 부족으로 낮은 공장 가동률을 보이는 곳도 있었는데, 이는 극도로 낮은 러시아 기온 때문으로 나타났다.

라트비아 원목 가격은 2020년 4분기에 이어 2021년 1분기에 더욱 가파르게 상승했다. 라트비아 산림청 LVM(리가)이 발표한 1분기 통계에 따르면, 베니어 생산을 위한 버치 원목 가격은 4분기 대비 25.2% 상승한 89.80유로/ m^3 로 나타났으며, 러시아 버치 합판 제조업체들의 공급량 축소로 최근 버치 합판 가격이 더욱 상승하고 있다. 중유럽 국가들에게 버치 합판은 매우 중요한데 주요 구매 시장인 러시아에서 소량 주문이 가능한 상황이다.

러시아는 2020년, 2019년 263.1만 m^3 보다 3% 증가한 270.8만 m^3 의 버치 합판을 수출했다. 분기별로는 2분기(2020년 647,342 m^3 vs. 2019년 664,356 m^3)와 3분기(2020년 632,934 m^3 vs. 2019년 687,897 m^3)에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지만, 1분기(2020년 685,029 m^3 vs. 2019년 630,836 m^3)와 4분기(742,437 m^3 vs. 647,501 m^3)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2021년 1분기 벨라루스의 제재목 및 대패목 수출은 2020년 동기 대비 25% 감소한 771,725 m^3 로 Belstat(민스크)가 월 단위로 발표하는 수출 무역 통계에 따르면 1분기 EU 수출은 2020년 대비 23% 감소한 623,374 m^3 로 나타났다.

2021년 1월~5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러시아 제재목은 16만5,150 m^3 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하였으며, 국내 시장 점유율은 20.4%이다. 동 기간 러시아 원목 수입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며, 2022년 1월 1일부터 러시아 정부는 원목 수출을 금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2021년 1월~5월까지 러시아 합판 수입은 18,320 m^3 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6% 감소하였다.



Part 2. 글로벌 임업 동향

01

호주·중국간 무역분쟁

- 개요
- 호주·중국간 교류 현황
- 호주의 대응



1. 개요

호주와 중국 간의 갈등은 2018년 호주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5G 이동통신 인프라 구축에 화웨이를 제외 하면서 시작됐다.

중국은 호주의 이런 태도에 불만을 가져오다 호주가 홍콩국가보안법 반대 공동성명에 동참하고 미국이 주장하는 코로나 팬데믹 중국 책임론에 동참하자 2020년 5월 호주산 보리에 80.5% 관세(반덤핑 73.6%, 반보조금 6.9%) 부과를 시작으로 소고기, 면화, 석탄, 목재, 랍스터, 와인, 구리, 설탕 등의 품목에 수입제한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체 불가능한 호주 철광석에 대해서는 수입제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발원지 조사 문제로 시작된 양국 갈등은 통상을 넘어 외교·안보 문제로 확대 되고 있다. 중국이 2020년 5월 호주산 소고기 수입 금지 및 보리 반덤핑 관세 부과 이후, 호주 내 코로나19와 관련한 인종차별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는 자국민에게 2020년 6월 호주 방문 자제를 권고하면서 여행과 유학이 제한되었다. 이후 2020년 6~9월에 걸쳐 양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기자와 학자를 대상으로 각각 압수수색 및 입국 금지 등 맞불 조치를 내놓으며 양국 간 외교 갈등은 격화되었다.

마침내 2020년 11월 18일 주호주 중국대사관은 호주 정부의 14가지 반중 정책을 공개하며 관련 정책 철회를 요구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화웨이 5G 장비 사용 금지, 「외국인 내정간섭 금지법」 발효, 미국의 코로나19 발원지 조사 촉구 동조,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반박, 신장 위구르 인권에 대한 중국 정부 비난, 주정부·외국 간 맺은 협정에 대해 연방정부 거부권 부여 등이다.

또한 11월 30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호주 군인의 아프가니스탄 민간인 학살을 비난하는 내용의 합성사진을 트위터에 게재하여 호주 정부가 이에 크게 반발했고, 12월 1일에는 호주 데일리 텔레그래프 1면에 중국 천안문 사태 관련 사진과 함께 “중국 군인들이 중국 민간인과 학생을 살해한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행위를 강력히 비난하고 그들에게 책임질 것을 촉구합니다. 이 사진은 진짜입니다”라는 문구를 게재하면서 맞불을 놨다.

2. 호주·중국 간 교류 현황

호주와 중국은 2020년 무역분쟁 전에는 매우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다. 양국은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호주의 대중국 수출액은 2019년 호주 전체 수출액(3,900억 호주달러)의 38.1%(약 1,500억 호주달러)였으며, 이 중 철광석은 대중국 최대 수출 품목으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82.2%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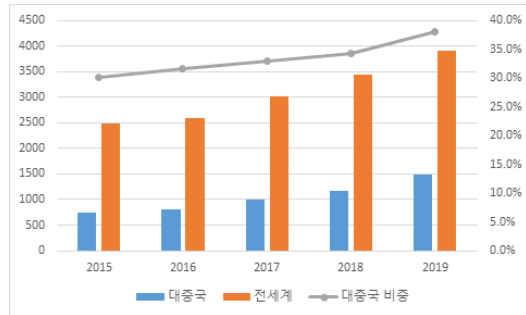
중국이 호주로부터 수입 제재 대상 품목으로 지정한 석탄, 소고기, 구리 등은 모두 중국 수출 비중이 20% 이상이며, 비공식적인 제재 대상 품목 중 하나인 목재는 2019년 중국 수출 비중이 94.3%에 달했다.



[그림 10]

호주의 중국 수출 추이(2015~2019년)

(단위 : 억, 호주달러)



출처 : 호주 통계청

[그림 11]

중국의 호주 수입 주요 제재 품목(2019년)

(단위 : 억, 호주달러)

순위	SITC	품목	금액	대중 수출 비중
3	321	석탄	13.7	21.4
6	011	소고기	2.7	24.7
8	283	구리	2.3	35.0
17	263	면	1.1	71.1
23	247	목재	0.6	94.3
24	043	보리	0.6	56.7

주 : 순위는 수출액 기준

출처 : 호주 통계청

중국의 호주 투자는 2016년 850억 호주 달러를 최고로 기록한 이후, 2017년 640억 호주 달러로 감소했으나, 2018년과 2019년 각각 6.6%, 14.6% 증가했다. 이 수치는 호주 투자 국가 중 9위에 해당하지만, 홍콩을 포함하면 5위(2,190억 호주달러, 5.7%)에 달하는 규모이다. 또한 호주는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유학지 중 하나로 최근 4년간 중국인 유학생이 호주 전체 유학생의 ¼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통계에서 보듯이 무역 갈등으로 인한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전 세계적 경기침체로 2020년 1~10월 호주 수출액은 약 3,000억 호주 달러로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7.9% 감소한 반면, 중국 수출액은 약 1,200억 호주 달러로 1.3% 감소에 그쳤으며, 대중국 수출 비중은 40.6%로 전년 동기 대비 37.9%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몇몇 부분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겨울 중국 남부의 후난성과 저장성의 정전 사태와 연료용 석탄 가격 폭등 원인을 호주산 석탄 수입 감소로 꼽고 있으며, 중국 내 철광석 값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하락은 관련 업계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반면 호주는 중국의 경제보복 대응 차원에서 2021년 3월 중국에 대한 건초 수출을 제한했고, 2021년 4월 호주 연방정부가 빅토리아주 정부와 중국 간 일대일로 협력 계약들을 취소했다. 또한 호주산 보리와 와인에 대한 중국의 관세 부과 조치를 WTO에 정식 제소했다.

3. 호주의 대응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는 자체 대응 외에도 국제협력을 통한 대중국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다.

첫째,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5개국 연합체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는 'UK-USA 안보협정'을 체결하여 기밀정보를 공유하는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호주·중국 갈등 관련 중국의 대호주 수입 제재에 대한 공동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특히, 중국산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공동으로 보복성 제재를 취하거나, 호주를 제외한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이 이번 중국의 수입 금지 품목에 포함된 호주산 제품을 대신 수입하는 등 호주를 지지하는 사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2020년 6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영국·호주 등 서방 19개국 의원들이 결성한 '대중국 의회 간 연합체(IPAC: Inter-Parliamentary Alliance on China)'는 이번 호주·중국 갈등과 관련하여 호주에 대한 지지 태도를 보임과 동시에 중국이 호주산 와인에 대해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자 대중국 의회 간 연합체는 '호주 와인 마시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셋째, 중국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일본·인도·호주 3개국은 상호 공급망 강화를 목적으로 '공급망 복원 구상(SCRI: Supply Chain Resilience Initiative)' 협력체를 결성하여, 일본·인도뿐만 아니라 아세안 주요국과의 공급망 강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 맞물려 중국으로 수출하던 목재는 우리나라와 인도 등의 국가로 수출되고 있다.



02

국제원자재 가격상승과 파급효과

- 개요
- 국제원자재 가격상승 배경 및 전망
- 슈퍼사이클 진입 가능성
- 시사점



1. 개요

국제원자재가격은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3~4월 원유를 중심으로 급락하다가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제유가는 지난해 하반기까지 횡보세를 보이다가 2021년 들어 오름세가 크게 확대되었고 금속·곡물·목재 등은 2020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림 12] 목재가격



주 : 시카고 상업거래소 근월물 기준
출처 : Bloomberg

[그림 13] 주요 원자재가격 상승률

(2019년 평균대비, %)

	2020		2021				
	3월중	하반기	1월중	2월중	3월중	4월중	5월중
알루미늄	-10.2	+1.1	+11.6	+15.8	+22.1	+28.7	+35.6
구리	-13.7	+14.2	+32.5	+41.0	+49.6	+54.4	+68.8
니켈	-14.9	+8.6	+27.9	+33.5	+17.9	+18.5	+26.3
철광석	-7.9	+35.3	+78.4	+77.7	+76.4	+87.2	+129.1
옥수수	-6.1	-1.2	+34.3	+43.3	+44.2	+60.0	+81.9
목재	-7.1	+78.0	+124.0	+159.2	+158.4	+234.9	+301.3

출처 : Bloomberg

국제원자재가격의 가파른 상승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고 있는데, 2021년 2~4월 미국의 물가상승률뿐만 아니라 유로 지역의 물가상승률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는 통화정책의 조기 정상화 기대를 높임으로써 주식 등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2021년 4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4.2%)이 시장 예상(3.6%)보다 높아 나스닥 지수가 2.7% 급락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원자재가격 상승이 일시적일지 아니면 지속적일지 이른바 ‘슈퍼사이클(Super Cycle)’로 진입할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원자재 슈퍼사이클(Commodity Super Cycles)이란 원자재가격이 중장기적으로 경제 내·외적 충격으로 가격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현상으로 원자재가격이 슈퍼사이클로 진입하면 일시적 상승에 비해 국내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2. 국제원자재 가격상승 배경 및 전망

최근 국제원자재가격 급등은 글로벌 경기회복, 일부 품목의 수급 차질, 투기수요 유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수요측면에서는 미국의 대규모 재정확대정책 등으로 글로벌 경기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 데다 품목별로는 개별적 수요증가 요인이 더해져 심화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목재의 경우는 코로나19 이후 가구, 주택 등에 대한 지출이 늘어났다는 점도 고려할 수 있다. 공급측면에서는 코로나19, 국제정치 갈등,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원자재공급 불충분이 꼽히고 있다.

품목별 수급불균형 외에도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품목으로 자금 유입이 확대되는 등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에 투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이후 미달러가 약세를 지속하면서 헤징수요가 늘어나고, 최근 투자수요와 연관된 위험자산 선호(risk-on)가 확대되는 등 실제 코로나19 확산 이후 미달러와 주요 원자재 가격 간 관계는 음(-)의 상관관계가 강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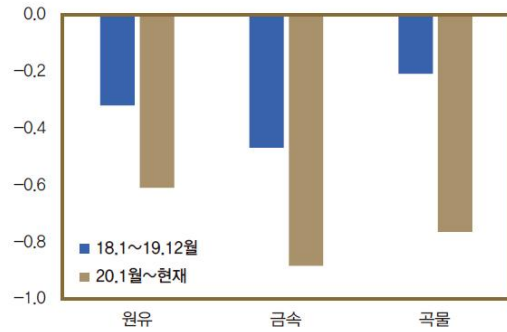


[그림 14] 달러화지수 및 시장 변동성



주 : 1) Merrill Lynch 국채시장 변동성 지수
출처 : Bloomberg

[그림 15] 달러화 및 원자재가격 상관관계수



자료 : Bloomberg, Reuters

출처 : Bloomberg, Reuters

원유뿐만 아니라 수급불균형이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운 구리, 옥수수 등 일부 품목 등은 투기자금 유입으로 비상업 순매수 포지션(상품 펀드, 원자재 헷지펀드 등)이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다.

주요 원자재 전문기관들은 국제원자재가격이 수급불균형 문제로 당분간 높은 수준을 지속하겠으나, 내년쯤에는 공급이 확대되면서 차츰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목재의 경우는 북미지역의 풍부한 목재용 수목(timber)을 고려할 때 주택건설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목재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 슈퍼사이클 진입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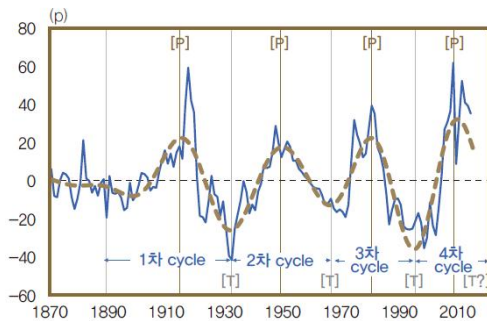
국제원자재가격의 슈퍼사이클 진입 여부는 현재 시장을 중심으로 상반된 견해가 공존하고 있다. 이는 친환경 산업의 파급효과, 글로벌 경기회복의 지속성 등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기인한다.

슈퍼사이클 진입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친환경 투자 확대를 배경으로 그린경제(Green Economy)가 산업 전반의 인프라 투자로 이어져 구리, 니켈 등 연관 원자재뿐만 아니라 원자재 전반의 상승 사이클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슈퍼사이클 진입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신흥국 경제가 과거 슈퍼사이클을 주도했던 수준의 고성장세를 회복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곡물, 원유 등은 증산 등을 통해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원자재가격의 슈퍼사이클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진행된 원자재 슈퍼사이클은 1870년 이후 네 차례 발생했다. 관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1차(1890~1930년), 2차(1930~1960년대 초·중반), 3차(1960년대 초·중반~1990년대 중·후반), 4차(1990년대 중·후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장기 슈퍼사이클 상승기와 하락기는 평균적으로 각각 15년과 16년간 지속됐다.

[그림 16] 원자재가격 장기 슈퍼사이클



주 : 점선이 장기사이클
출처 : Statistics Canada(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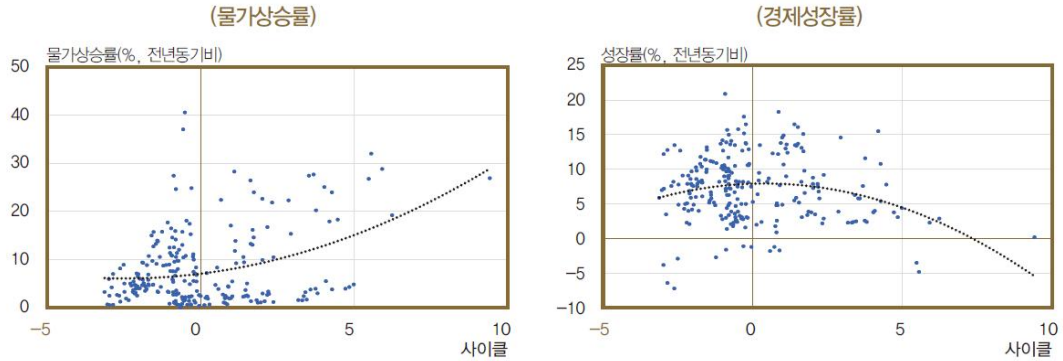
1차 장기 슈퍼사이클은 19세기 후반, 미국의 산업화와 2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대량 생산, 2차 사이클은 2차 세계대전 직전의 글로벌 재무장(rearmament)에 주로 기인했다. 3차 사이클은 1950~60년대 유럽과 일본의 산업화, 4차 사이클은 중국의 본격적인 세계 경제 진입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처럼 주요 경제권의 산업화, 기술혁신 등이 원자재 장기사이클을 주도했다.

과거 네 차례 슈퍼사이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분석해보면 과거 사례와 다르게 글로벌 경기회복, 공급 차질, 투기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현재의 원자재가격 상승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물론, 가격상승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또한 불확실성이 높아 원자재가격의 슈퍼사이클 진입 여부를 현시점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원자재가격 상승이 국내경제에 비용 충격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원자재 슈퍼사이클은 물가상승률과는 양(+)의 상관관계(0.32)를 갖는 반면 성장률과는 음(-)의 관계(-0.12)를 갖는다.



[그림 17] 물가상승률 및 경제성장률과 원자재가격 사이클



주 : 1961년 이후 기간 대상

4. 시사점

최근 국제원자재가격은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 품목별 공급차질, 투기자금 유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급등하고 있다. 주요 원자재 분석기관은 수급 여건상 현재의 높은 가격수준이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내년에는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자재가격의 새로운 상승사이클로의 슈퍼사이클 진입 여부는 아직 불확실성이 큰 상황으로 보인다.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에 일시적, 추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다 친환경 투자 확대를 배경으로 하는 그린경제(Green Economy)가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을 주도할 수 있을지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에서도 슈퍼사이클 진입 여부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향후 원자재 가격의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주요국의 친환경 정책 가속화 여부, 주요 원자재 생산국의 생산능력 확충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경제활동 정상화 과정에서 생산자물가나 기대인플레이션 경로를 통해 물가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가 추이 모니터링은 필요한 시점이다.

향후 경제활동 정상화 과정에서 생산자물가나 기대인플레이션 경로를 통해 물가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가 추이 모니터링은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 국립산림과학원, 2021 산림·임업 전망-미래 환경에 대응한 산림·임업·산촌, 국립산림과학원, 2021
- 김래현·조성실·이선정·이주원, 탄소중립, 장기저탄소발전전략 및 자연기반해결방안 추진 현황과 시사점, 국립산림과학원, 2021
- 김정선·이종웅·임상은·권인하·진형태, 국제원자재가격 상승배경 및 국내경제에 대한 파급영향 점검, BOK 이슈노트, 제2021-12호, 2021년 6월
- 박영석·강구상·장영욱·김승현·이효진,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 경제, Vol. 21 No.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년 2월
- 안성배, 2021년 세계경제 전망, Vol. 21 No. 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년 5월
- 이선형·박나연, 세계경제포커스, 최근 호주·중국 갈등 관계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 경제, Vol. 3 No 3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년 12월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로나 19로 원인 규명으로 약화된 호-중 관계, KORTA 해외시장뉴스, 2020년 6월
- <https://www.pressian.com>, 호주-중국의 대립, 선봉에 선 호주와 보복하는 중국, 2021년 6월 25일

[참고] 용어/약어 해설 (1/2)

용어/약어	원 어	해 설
BB/CC etc	quality of face and back veneer	합판의 갑판과 을판의 품질 등급
BF	Board foot	1인치×1피트×1피트 판재의 재적
MBF	1000 board foot	1,000 보드피트
CIP	Cost and Insurance Paid	제품가 + 보험료
CNF	Cost and freight	제품가 + 운송비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제품가+보험료+운송비
cu.m cbm	cubic metre	1미터×1미터×1미터 재적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가격
FAS	First and second grade of sawnwood	제재목의 1등급과 2등급
FOB	Free-on board	본선인도가격
Genban	Sawnwood for structural use in house building	건축구조용 제재목
AD	Air dried	자연건조
KD, AD	Kiln dried,	인공건조
Koku	0.28 cubic metre or 120 BF	일본의 목재 재적단위
MR	Moisture resistant,	준내수성 접착제 등급
WBP	Water and boil proof	내수성 접착제 등급
OSB	Oriented Strand Board	방향성 웨이퍼보드
PHND	Pin hole no defect	비늘구멍은 결점아님
SAAR	Seasonally adjust annaul rate	계절조정 연율
Scribner	Scribner log scale	스크라이브너 로그법(Scribner Log rule)이 재적법은 말구단면을 원으로 보고 이것을 그림으로 그린 다음, 톱날폭(kerf)을 건적하여 적당한 제재목도를 그려 이용재적을 구하는 것으로서, 무피말구직경의 크기에 따라 일일이 그림을 그려서 산출
MSQ	1000 Square foot	1,000 스퀘어피트
SSQ	Superior Saw Mill Quality	수출용

[참고] 용어/약어 해설 (2/2)

용어/약어	원어	해설
SQ	Saw Mill Quality	수출용
LG	Local Grade	내수용이었으나 수출 허용
MQ	Mill Quality	수출용
REGULAR	Regular	정상목, SQ + MQ
SM	SM, Small	직경 50~59cm
SSM	Super small	직경 30~49cm
Pruned grade	Pruned peelers	합판용 원목
제재용 A grade	Large sawlog-KOREA	말구직경(SED) 최소 34cm
제재용 K grade	Standard Sawlog-KOREA	말구직경(SED) 최소 20cm
KI grade	Oversized logs - KOREA	- 말구직경(SED) 최소 30cm 이상 - 옹이의 크기(Knot size) 제한 없음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인도	수출자가 수입국의 어느 장소까지 운송하여 수입자가 물품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둘 때까지 모든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 인도	DDP조건과 유사함. 다만, DDP 조건과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DDP 조건은 매도인이 수입국 현지의 수입통관 주체가 되나, DAP조건은 매도인은 단순히 물품을 운송만 시켜줄 뿐 수입국 현지의 수입통관은 수입자가 진행을 하여야 함
DDU	Delivered Duty Unpaid 관세 미지급 인도조건	DDP 조건과 대부분의 조건이 다 동일하나 수입국의 수입통관을 수입자가 진행하고 관세 또한 수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지역의 약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면 매도인의 비용과 위험부담이 끝나는 조건
CPT	Carriage Paid To 운임지급 인도	CPT 다음에 기재되는 수입국의 약정한 장소까지의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므로 운송계약을 매도인이 체결해야 하므로 매도인이 운송인을 지정함
FAWG	Free At Wharf Gate	부두인도가격

발행처

Kofpi 한국임업진흥원
Korea Forestry Promotion Institute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전화 1600-3248

홈페이지 : www.kofpi.or.kr

해외산림정보서비스 : ofis.kofpi.or.kr

편집·디자인

(재)한국종합경제연구원